



FIP2017 서울총회 세계약사 총집결

9월 10일부터 코엑스에서 7일간의 대장정

2700명 세계약사 대거 참여

9월 10일부터 삼성동 코엑스에서 7일 간 열린 FIP서울총회가 북핵실험과 사드의 영향에도 아시아 개최국 중 최대 참여인원을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다.

전인구 FIP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은 6일 서초동 소재 한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"이번 대회에

94개국이 참여해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약학 분야의 실무 등 전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"이라며 "약학을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대회가 될 것"이라고 평가했다.

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등록 인원은 1690명이며 한국 약사들의 참여가 포함될 경우 2700명 규모가 됐다고 밝혔다. 이 수치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규모 참석 인원인 2500명을 뛰어 넘는 기록이다.

한국약사, 역량과 능력 선보여

송재경 위원장은 "가장 성공적인 FIP총회가 뒤셀도르프대회였는데 당시에는 팜엑스포가 함께 열려 2700명이 등록했다"면서 "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2700명의 참석은 의미 있는 수치"라고 밝혔다.

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FIP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세션으로는 한국세션1,2가 진행됐다.

10일 코엑스그랜드볼룸 104호에서 진행되는 한국세션 1에서는 한국 약학에의 환영 메시지에 이어 ▲한국의 약학교육의 과거, 현재, 미래 ▲한국의 DUR 제도의 현황과 전망 ▲지역약국의 의약품 책임사용 활동과 과제 ▲병원약국의 약료 현황과 과제 ▲식약처의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 현황과 국제화 ▲한국의 제약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논의됐다.

1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에서 열리는 한국세션2에서는 ▲각국의 동일성분 조제 및 성분명 처방 실태 ▲WHO의 동일 성분 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▲France의 INN(성분명)처방 도입 사례 발표 ▲미국의 동일성분 조제와 성분명처방 실태 ▲일본의 동일 성분 조제와 성분명 처방 실태 ▲패널토의 등이 진행됐다.

12일과 1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라운드테이블 미팅은 ▲안전상비약과 약사의 역할 ▲미래 사회와 약사의 직능 ▲실무실습교육의 질 관리와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FIP서울총회 개막식은 10일 오후 3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리며 FIP 오프닝 세레모니와 각종 축하공연이 진행됐다.

문윤희기자/MP저널

